

‘동아시아컵 2연패 달성’ 신태용호, 이제는 월드컵 모드

손흥민 등 해외파 없이 아시아리그 선수로 팀 꾸려
러시아월드컵 6개월 앞둔 시점 부진 털어내
내년 1월 전지훈련 · 3월 유럽원정 평가전 준비

적지에서 거둔 더할 나위 없는
완벽한 승리였다.

한국 축구가 78번째 한일전에서
오랜만에 활짝 웃었다. 그것도 적지
인 일본에서 7년7개월 만에 거둔 대
승이다.

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
팀은 16일 일본 도쿄의 아지노모토
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17
동아시아연맹(EAFF) E-1 챔피언십
(동아시아컵) 최종 3차전에서 먼저
골을 허용했지만 김신욱(전북)의 멀
티골과 정우영(충청), 염기훈(수원)
의 프리킥 골을 보며 4-1로 제압했
다.

이날 승리로 한국은 2회 연속 우
승과 함께 통산 4회 우승을 이뤄내
며 최다 우승국이라는 명예를 쌓았
다.

무엇보다 2018 러시아월드컵을
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신태용 감
독은 이 대회를 통해 그간 부진을
말끔하게 씻어냈고 마음의 집도 함

께 떨어졌다.

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부
진으로 경질됐던 울리 슈틸리케 전
감독을 대신해 급하게 지휘봉을 잡
았던 신태용 감독은 2회 연속 월드컵
진출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
지만 히딩크 감독 파문으로 휘청거
렸다. 여기에 지난 10월 유럽 원정
평가전에서 러시아(2-4패)와 모로코
(1-3패)에 당한 패배는 축구팬들이
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.

이후 11월 국내에서 열린 콜롬비
아, 세르비아와의 2연전에서 1승1무
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신태
용 감독은 이번 동아시아컵에서 확실
한 결과를 얻고 싶어했다

손흥민(토트넘), 기성용(스완지시
티), 권창훈(디종) 등 해외파를 소
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K리그
와 J리그 그리고 C리그(중국) 소속
선수들로 팀을 꾸렸다.

1차전 중국전에서 다잡았던 승리
를 놓치며 2-2 무승부로 대화를 시



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EAFF E-1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고 기뻐하고 있다.

작했고 북한과의 2차전에서는 상대
수비를 끝내 뚫지 못한 채 지책골로
머뭇치는 1-0 승리를 챙겼다.

그만큼 일본전이 중요했다. 2015
년 대회 우승 이후 2연패에 목표를
뒀다. 이 대회를 월드컵을 위한 전
초전으로 삼았다.

여기에 지난 2010년 5월 사이타
마에서 열린 한일전 2-0 승리 이후
계속된 7년7개월간의 무승 징크스도

깨야했다. 고심 끝에 그가 마지막
경기에서 선택한 것은 4-4-2 포메이
션이었다. 결과는 성공적이었다. 전
반 3분 만에 페널티킥 골을 내렸지
만 한국은 무서운 기세로 일본의 골
망을 4번이나 흔들었다.

신태용 감독은 이번 대회서 다양한
전술을 시험했다. 중국전에서는 4-
2-3-1을 꺼내들었고, 북한전에서는
3-4-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. 완벽하

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봤다. 북한전
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진성욱
(제주)을 발굴한 것도 수확이다.

결과적으로 신태용 감독은 동아
시아컵 우승을 이뤄내며 자신의 지
도력을 입증했다. 또한 월드컵 본선
에서의 활약도 기대하게 만들었다.

기쁨도 잠시, 이제부터 월드컵 모
드다. 본선에서 만나는 상대는 동아
시아컵에서 만났던 아시아팀들과는

차원이 다르다. 내년 1월 아랍에미
리트(UAE)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
이 예정돼 있고 3월에는 유럽 원정
평가전을 통해 월드컵에 나설 선수
들을 가려내야 한다. 신태용 감독의 시
계가 빨리 움직이고 있다.

한편 동아시아컵 2연패를 달성한
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7일 오후 김포
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.

뉴스



16일 오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EAFF E-1 챔피언십 남자부 일본 대 한국의 경기에서 한국 염기훈(19)이 네번째 골을 성공시킨 후 기뻐하고 있다.

안방에서 열린 한일전서 ‘참패’ 38년 만에 4실점... 들끓는 일본

안방에서 한일전 참패를 당한 일
본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.

일본은 지난 16일 도쿄의 아지노
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의
2017 동아시아연맹(EAFF) E-1 챔
피언십 최종전(3차전)에서 1-4로 대
패했다.

전반 초반 페널티킥으로 리드를
잡았지만 김신욱(전북)의 멀티골과
정우영(충청), 염기훈(수원)의 프리
킥 골에 무너졌다. 한국이 한일전에
서 4골 이상 넣은 것은 1979년 이후
38년 만이다. 일본 원정 4득점 이상
경기는 1954년 스웨덴월드컵 예선
5-1 승리 이후 63년 만이다.

홈에서 처참히 무너진 것에 일본
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. 스포
츠초호치는 “경기 종료 후 관중석에
서 아우가 쏟아졌다. 비하드 할리호

지치 감독을 향해 ‘불러나라’는 이
야기도 들렸다”고 소개했다. 이 매
체는 “이번 대회는 월드컵 출전을
타진하려는 국내파들에게는 마지막
기회였지만,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
는 없었다”고 꼬집었다.

산케이 스포츠는 “해외파를 포
함한 모든 멤버가 와도 한국에 이
길 수 있었던지는 모르겠다”는 할
리호지치 감독의 멘트에 대해 “감
독으로서 적당한 말이었는지 모르
겠다”고 지적했다. 또 “올해 마지막
A매치였는데 월드컵에 대한 불안감
만 쌓였다”고 했다.

다자마 고조 일본 축구협회장은
거친 말들로 분노를 쏟아냈다. 다자
마 회장은 “한비리로 한심하다. 오
랜만에 이런 경기를 봤다. 차원이
다른 한심함”이라고 질타했다.

이승훈, 평창올림픽 5개 종목 출전권 확보... 이상화는 500m·1000m

여자 1500m·3000m·5000m는 확보 실패

스피드스케이팅 매스타트 ‘황
제’ 이승훈(29·대한항공)이 2018
평창동계올림픽에서 5개 종목 출
전권을 확보했다.

빙속 여자 이상화(28·스포츠투
토도)도 500m, 1000m 출전권을 따
냈다.

국제빙상경기연맹(ISU)은 15일
(한국시간) 평창올림픽 출전 선수
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. ISU는
2017~2018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
드컵 1~4차 대회 성적을 바탕으
로 평창올림픽 종목별 출전권을
배분했다.

이에 따르면 이승훈은 남자
1500m·5000m·1만m와 매스타
트 출전권을 확보했다. 이승훈과
김민석(18·평촌고), 정재원(16·
동북고)으로 이뤄진 남자 팀추월
대표팀이 출전권을 따 이승훈이
확보한 출전권은 5장이 됐다.

이승훈은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
귀국할 당시 “상황을 보고 5개 종
목 모두 출전할 지 결정할 것이다
매스타트, 팀추월을 최우선으로
생각하고 있다”고 전한 바 있다.

이승훈은 출전권 24장인 5000m
에서 15위, 12장인 1만m에서 11위
로 출전권을 따냈다. 남자 5000m와
1만m에서 출전권을 확보한 한국
선수는 이승훈이 유일하다.

자신의 주종목인 매스타트에
서는 전체 1위로 출전권을 거머쥘

었다. 남녀 매스타트에는 24장의
출전권이 배정됐고 국가당 최대 2
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. 정재원이
이승훈과 함께 출전한다.

남자 1500m에서는 중거리 기대
주 김민석과 함께 출전권을 거머
쥘었다. 1500m에서 강세를 보이는
김민석은 10위로 36장의 출전권
중 한 장을 가져왔고 이승훈은 24
위로 출전권을 확보했다.

남자 팀추월은 4위로 8장의 출
전권 중 한 장을 따냈다.

이상화는 여자 500m에서 고다이
라 나요(31·일본)에 이어 월드컵
랭킹 2위에 올라 평창올림픽 출전
권을 가져왔다. 1000m에서는 20위
로 출전권을 따냈다.

평창올림픽 여자 500m와 1000m
에는 각각 32장씩의 출전권이 걸
려있고, 국가당 최대 3명까지 출전
할 수 있다.

이상화 외에 김민선(18·서문여
고)과 김현영(23·성남시청)이 각
각 14위, 18위로 출전권을 품에 안
았다. 박승희도 월드컵 랭킹 24위
에 올랐지만, 김민선과 김현영이
더 높은 순위에 오른 탓에 예비
엔트리로 밀렸다.

박승희는 1000m에서는 21위로
출전권 확보에 성공했다. 김현영도
함께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됐다.

한국 여자 매스타트 ‘간판’
김보름(24·강원도청)은 주 종목



이승훈(29·대한항공)·김민석(18·평촌고)·정재원(16·동북고)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팀추월 대표팀

인 매스타트에서 10위로 출전권
을 확보했다. 박지우(19·의정부여
고)가 22위로 이슬이슬하게 출전
권을 얻었다.

여자 1500m와 3000m, 5000m에
서 출전권을 확보한 한국 선수는
없는 상황이다. 1500m 예비 명단
에 노선영(28·콜빙팀)이 2순위로
김보름이 6순위 이름을 올렸고,
3000m에서는 김보름이 예비 명단
2순위에 오르는데 그쳤다. 5000m
에서는 예비 명단에도 한국 선수
의 이름이 없었다.

김보름과 박지우, 노선영으로
구성된 여자 팀추월 대표팀은 8위
에 올라 턱걸이로 출전권을 따는

데 성공했다.

36명이 겨루는 남자 500m에서는
차민규(24·동두천시청)와 김준호
(22·한국체대), 모태범(28·대한
항공)이 출전권을 확보했다. 김태
윤(28·서울시청은 월드컵 랭킹
26위였지만, 국가당 출전권 제한
탓에 예비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
게 됐다.

36장의 출전권이 걸린 남자
1000m에서는 김태윤과 모태범, 정
재용(18·동북고)이 출전권을 얻
었다. 장원훈(28·의정부시청)이
예비 명단에 포함됐다.

뉴스

맨시티에 막힌 손흥민, 5G 연속골 무산

토트넘, 1-4 완패

손흥민(토트넘)의 기세가 맨체
스터 시티에 막혀 한 골 꺾였다.
토트넘 역시 마찬가지로이다.

손흥민은 17일(한국시간) 영국
맨체스터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
열린 2017~2018 잉글랜드 프리

미어리그(EPL) 맨시티전에 선발
로 나왔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
는데 실패했다.

12월 내내 지속됐던 연속 득
점 행진도 4경기에서 막을 내렸
다.

경기는 맨시티의 4-1 완승으로
막을 내렸다.



전남드래곤즈자유선발 신인 2명 영입

김경민·김경민

전남드래곤즈(사장 신승재)가 내
년 시즌부터 활약할 자유선발 신인
선수 2명을 영입했다.

U-20 청소년대표 출신인 김경민
선수는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력이
매우 뛰어난 측면 공격수이다.

또한 높은 타점을 이용한 헤딩
특장력이 남다른 주전 선수를 이
용한 연계플레이를 잘 활용하는 선
수이다.

2017 대학대표 선발 경력이 있는
김경민 선수는 아주대학교에서 프
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할 정도로 킥
이 매우 정교하며, 중거리 슈팅 개

인기가 우수하여 공격형 미드필더
와 새도우 스트라이커를 소화할 수
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이다.

유상철 호에 새롭게 합류한 자유
선발 신인 선수 2명은 “전남에 입단
하게 되어 영광이다. 프로에 온 만
큼 팀의 주축 선수가 되도록 최선
을 다하겠다.”고 입단 소감을 밝혔
다.

한편 자유선발 신인선수 프로필
은 김경민 센터포드, 측면공격수(군
산제일고 전주대, 184cm, 78kg, 1997
년생) 한승욱 공격형 미드필더(현
종고 아주대, 178cm, 67kg, 1995년
생)이다.

김승호 전남동부체육본부장